영광 대마산단 유치기업 공장건설 잇따라

기반시설 조기건립 급하다

폐수처리장·진입로 등 국비확보 서둘러야

영광 대마산단은 착공 1년만에 선분양률 50%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선분양 기업체들의 조기착공 및 가동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산단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공장 가동에 필수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마산단은 사업비 2032억원을 투입, 대마면 송죽리·남산리 일원 165만㎡ 규모를 산업용지로 조성하며, 지난 2009년 12월 착공해 현재 종합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장가동에 필수 기반기설인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2014년까지 179억원(1단계 118억·2단계 61억원)을 투입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또한 산단 진입도로는 사업비 314억 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완공 계획이나 올 사업비로 국비 20억원만이 확보된 상태다.

이에 반해 선분양 받은 일부 업체가 산단 완공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장을 건설·가동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에코넥스가 대마산단내 25만㎡의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만5000대 규모의 전기자동차 직구동 모터 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8일 기공식을 가졌다.

또 전기충전기 제조업체인 (주)시그넷시스템은 7000㎡을 확보하고 1차적으로 2012년 4월까지 95억 원을 투자해 연산 급속 충전기 모듈 8000대, 완속 충전기 1500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신축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대규모 해외 계약 진행사항에 따라 2차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분양 받은 유치기업들이 잇따라 공장 조기 건설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산단 진입도로와 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입주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영광군은 기반시설 조기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군 관계자들이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조롱박 터널에 추억이 주렁주렁~

목포시 유치원생들이 유달동 주민센터내 조롱박 터널을 찾아 자연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4월에 자활근로사업으로 300m 길이의 조롱박 터널을 조성했다. 〈목포시 제공〉

영광 '굴비 갈등' 해소 국면

수협-상인측, 군 중재안 수용할 듯

영광수협과 굴비 상인간에 촉발된 '굴비 판매'갈등이 해소 국면을 맞고 있다.

영광수협과 법성면 굴비 상인 대표들은 지난 6일 군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협의 굴비 직가공 판매사업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수협이 수산물 직가공 사업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상인들은 위탁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한다는 군의 중재안에 공감했다.

양측은 중재안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다음 간담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수협 측은 군이 제시한 중재안을 이사회에서 협의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굴비특품사업단을 비롯한 굴비 상인들은 수협 측에 영광굴비 직가공 판매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3월 17일부터 수차례 항의 집회와 거리시위를 벌여 왔다.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강행원 단장은 "굴비판매 중단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는데 최근에 수협이 많은 양을 수매하면서 조기 원물가 가격이 턱없이 올라 상인들의 손해가 크다"면서 "직가공 사업만 하지 않으면 상인들도 수협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목포 대양산단 조성 '청신호'

市, 국내 굴지 건설사와 막바지 실무협상

민선 5기 목포시 최대 숙원사업인 대양 일반산업단지(이하 대양산단)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목포시는 국내 도급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A건설사로부터 지난 7월 26일 의향서를 접수받아 막바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시는 MOU 체결이나 협약서 체결 시까지 비공개를 공식 요청해와 건설사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양동 797번지 일원 156만1879㎡에 들어설 대양산단은 예상 사업비만 시설비 1290억원과 보상비 1620억원 등 총 3,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통한 SPC(특수 목적법인) 설립 형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조달된다.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해도 사업성 세부검토→ 설립계획서 작성 →업무 협약→ 출자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5개월이 소요돼 빠르면 연말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사는 산입법 제26조 1항에 의한 기반시설 비용으로 목포시가 190억 원을 보조해 줄 것과 미분양 됐을 경우 ▲준공시점에 50% ▲준공1년내 82% ▲2년내 18%에 대한 20%의 용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시설 비용보조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될 경우 평당 분양가는 75만~80만원선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 민간 사업자를 통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2개항의 쟁점만 합의되면 조만간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함평 단호박 600t 日 수출

함평군에서 재배되는 단호박 600t이 올해 일본에 수출된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호박사랑 영농조합법인(대표 백인엽)은 지난 2008년에 이어 최근 일본 기업 두 곳과 올해 단호박 600t가량(9억원)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인은 지난달 93t(1억4000만원)을 1차로 선적해 일본에 수출했다. 특히 단호박 포장박스에는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로 '함평 호박사랑'이란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어 함평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일본 내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인엽 대표는 "내년에는 단호박 신품종을 보급해 함평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신안염전에서 첫 '소금박람회'

郡, 내달 2~4일…소비층 확보 수요 창출

전국 유일의 소금박람회가 9월 2~4일 3일간 신안 염전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그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다른 음식박람회 장소에서 개최했던 소금박람회를 올해는 천일염이 생산되는 신안 염전에서 단독으로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신안 염전의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과 가공소금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국내 수출기업들에게는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 유명소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염전을 매개로 한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급 소비층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소금박람회에서는 천일염 제품 홍보를 위한 참가기업 전시관이 설치돼 수출상담회가 열리며 관광객들은 소금밭과 소금박물관, 소금 힐링센터 등을 평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소금박람회를 통해 국산 천일염의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천일염을 산업화하고 동시에 염전 생태관광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전 북

순창 강천산 휴양단지 조성 '탄력'

토지사용승낙서 90% 이상 동의

순창 강천산 주변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대규모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원활한 토지매입으로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신현승 순창군수 권한대행과 정진호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팀장 등 실무자 10여명은 최근 사업부지내 최대 토지소유자인 군산 CC 김춘동 회장을 찾아가 사업 타당성과 순창의 미래 비젼을 설명하고 토지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기본계획에 착수해 과업 수행중에 있는 강천산 휴양단지가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90% 이상 동의를 받아 연내 지구지역 지정과 함께 사업착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팔덕면 청계리·용산리 일원 부지 20만5718㎡에 661억원을 투자해 타워형·빌라형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비롯해 실내외 아쿠아시설, 소규모 회의장과 교육시설,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세계적 빛축제 새만금 밝힌다

군산시, 업체 2곳과 '판타스티카 루체 2011' 운영협약

10월 1일부터 한달간

화려한 LED 조명을 이용한 빛 축제가 새만금에서 펼쳐진다.

군산시는 8일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군장AMC, 컬쳐시티21과 함께 루미나리에 축제인 '새만금 판타스티카 루체 2011'의 성공 개최를 위한 운영 협약식을 했다.

이 축제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군산새만금 산업전시관 광장에서 LED 조명과 3D 전광판을 이용해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새만금 에어쇼도 열려 축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루미나리에 제작비용 100억원과 운영 비용 30억원은 업체측에서 부담하고, 군산시는 행사장을 제공하게 된다.

루체 2011 축제에서는 루미나리에 설치공연 이외에도 예술단 공연과 무성영화제 상연,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가 선보인다.

이 회사의 주관사는 이번 축제에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람료 수입의 5%는 군산시 교육발전기금에 기탁돼 지역인재 양성에 쓰인다. '판타스티카 루체'는 이탈리아어로 '환상적인 빛'이란 의미다.

1600년대에 시작된 루미나리에 축제의 대표 도시는 이탈리아(밀라노)와 독일(도르트문트), 스페인(발렌시아)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갯벌 탐험대 출발! 지난 6~7일 고창군 심원면에서 열린 전국 갯벌 스포츠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트랙터를 타고 갯벌 체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갯벌축제에는 전국에서 3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고창군 제공〉

정읍 무항생제 돼지 '단풍미인' 상표사용

정읍에서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가 지역 대표 브랜드를 달고 판매된다.

정읍시는 "농업법인 아리울주식회사가 신청한 무항생제 돼지 브랜드 '아리울포크'의 '단풍미인' 상표 사용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정읍시가 인증한 지역 농축산물인 '단풍미인' 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은 쌀, 한우, 토마토, 수박, 복분자주, 약주 등 모두 7개가 됐다.

아리울 주식회사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은 친환경 축사에서 미생물제와 매실·배즙 발효액, 녹차가루를 넣은 사료를 먹여 질병 면역력을 높은 돼지를 키웠다.

회사는 이들 돼지 중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1등급 이상의 돼지만을 선별해 '아리울 포크'로 출시한다.

이형철 대표는 "무항생제 돼지는 수입 돼지고기에 맞서는 품질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라며 지역 농가들과 연대해 전체 28만 마리 중 절반 가량을 무항생제 방식으로 사육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 '지평선 마라톤대회' 10월 3일 개최

김제시는 '제10회 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를 10월 3일 개최한다.

대회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는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와 이를 따라 핀 코스모스 길을 달리는 것으로 21.1km(하프)와 10km, 5km 등 3개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하프와 10km는 3만원, 5km는 1만원(초등학생 5천원)이며 하프와 10km 참가자에게는 지평선쌀 10kg을 준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imjemarathon.co.kr)를 통해 9월 2일까지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시, 가축질병 방역활동

남원력는 가축에 큰 피해를 주는 모기매개성 질병의 방역활동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해 시 지역에서 모기매개성 질병으로 100여 마리의 소가 피해를 봄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축산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집중예찰과 질병지도에 나섰다.

시는 모기매개성 질병예방을 위해 '아카바네병'과 '유행열' 예방백신을 농가에 공급하고 예방접종을 마쳤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단신

전북도 여성 일자리센터 완공…내달 개관

전북도내 여성의 취업기술의 배움터가 될 여성 일자리센터가 완공됐다.

전북도는 "'여성 일자리센터'가 착공 1년 6개월 만에 최근 완공돼 9월에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비 30억원과 도비 57억원 등 총 1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센터는 전주종합경기장내 부지(6816㎡)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 센터에는 교육실과 회의실, 강당동이 설치됐으며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시설로 운영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 내달 3일 '어린이 영어 골든벨' 개최

전주시는 9월 3일 오후 2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전주시 어린이 영어 골든벨'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영어 몸풀기 퀴즈를, OX 퀴즈,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출제 문제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4배수로 사전 공개됐으며, 생활영어·전주 바로알기 등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으로 출제된다.

참가자격은 전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며,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e-메일이나 방문, 전화, FAX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문의(063-281-2251)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허브사업단, 25일까지 허브교실

(사)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허브산업에 대한 관심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허브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허브교실은 '허브에 관한 이해와 대중화'를 주제로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2층강당(4~25일 매주 목요일) ▲남원시 여성센터(9월6~12월 20일 매주 화요일)에서 열린다.

특히 허브교실은 식용 허브 활용, 허브 분화(盆花), 비누·화장품 만들기, 아로마테라피의 이해와 체험 등 실습위주로 진행된다. 문의(063-620-6255)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경찰, 청소년 탈선예방 선도활동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범죄 및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도활동을 펼쳤다.

김제경찰은 가출 및 유원지 배회, 음주·흡연, 남녀혼숙, 강·절도, 집단 패싸움, 부녀자 희롱·추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 및 선도활동을 벌였다. 또 유원지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술·담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